

한 대학
다른 학과 8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VS 문화콘텐츠학과

우리 삶에서 늘 가깝게 접하는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에 흥미를 느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문화콘텐츠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향의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두 학과 모두 팀원들과 함께 과제를 제출하는 '팀플(팀플레이 과제)'이 많다.

취재 손희승 리포터 sonti1970@naeil.com
자료 건국대학교 입학처

#1 무엇을 배우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문화콘텐츠학과

인문학과 콘텐츠

FOCUS 문화콘텐츠학과는 인문학에 기반을 두고 공연·전시·방송·영상·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배운다. 콘텐츠를 매체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하는 학문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다. 방송·영상·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의 성격에 대해 배우고 그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실무를 공부한다.

#2 학과 소모임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영상·광고·응용기호학·글쓰기

문화콘텐츠학과

게임·한류문화·연극·창업

FOCUS 학과 안 소모임을 보면 학과의 특징이 좀 더 분명해진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영상·광고·언론사 취업 준비반·응용기호학·인지심리학·글쓰기·스피치 등의 소모임이 있다. 문화콘텐츠학과는 게임기획·문화기획·영상기획·연극·한류문화 이해·창업 등이 있다.

#3 다른 전공과 융합한다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경영학·심리학

문화콘텐츠학과

컴퓨터공학과·글로벌MICE전공

FOCUS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면 기업의 홍보마케팅 분야로 진출 가능하다. 언어학과 기호학을 익혔으니 심리언어학으로 나갈 수도 있다. 문화콘텐츠학과는 컴퓨터공학과와 융합하면 게임과 ICT 산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건국대의 연계 전공인 글로벌MICE전공을 함께 공부하면 전시와 관광 등을 기획할 수 있다.

#4 졸업 후 진로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언론인·광고업계

문화콘텐츠학과

게임기획자·전시기획자

FOCUS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 방송사 PD를 꿈꾸는 경우가 많지만, PD는 언론사 공채를 거쳐야 하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에서 온다. 문화콘텐츠학과는 게임 회사나 전시기획 회사 등에서 인턴을 하다가 콘텐츠 업체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다. @